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오태희 편집국장:조선근

주간성경공부, 양성부, 경로대학 등 가을 맞으며 전교인 성경공부

주간성경공부 및 양성부 9월 4일 개강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깊고 체계있게 공부하여 신앙인격을 성숙케하고 평신도지도자를 양성하여 효과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케하기 위하여 성경을 배울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성경연구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주간성경공부는 매년 봄학기과 가을학기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93년도 가을학기가 9월 4일 교양양성부와 찬양대원양성부의 개강과 함께 시작된다. 주간성경공부는 주간중 화, 수, 목, 금요일을 이용하여 실시되는데 이번 학기는 이사야서, 주제별 생활연구, 부부 성경공부, 크로스웨이, 계단별 양육훈련 등 17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희망자는 각 과목별로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는데 한 학기에 두 과목 이상은 않된다.

주간성경공부는 철저한 학점관리제로 운영되고 있다. 6학기(3년)를 마치면 이수자로 하는데 수료학점은 8학점 이상이며 1학점은 1과목으로 하고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수료자에게는 충헌교회 정교사 자격증과 직분자 선정시 이수 사항을 고려하는 특전을 주고 있다.

입학은 충헌교회 교인에게 우선권을 두되 타 교인도 수강할 수 있다. 학력, 연령, 신급, 직분의 제한이 전혀 없이 누구나 희망자는 입학할 수 있다. 수강료는 한과목당 3,000원이다.

93년도 2학기는 9월 4일 개강해서 12월 3일까지 14주동안 공부하게 된다. 원서접수는 9월 4일 까지 교육국에서 한다.

주간성경공부

화요일 오전10:00~11:10	이사야(2) 이 병 각 목사	화요일 오전10:00~11:10	주제별성경연구(고리편) 성 봉 환 목사
화요일 오전11:20~12:30	주제별성경연구(생활편) 장 봉 생 목사	화요일 오전11:20~12:30	고린도후서 정 광 욱 목사
화요일 오후7:00~8:10	부부 성경공부(주제별) 최 인 근 목사	화요일 오후8:20~9:30	스가라 김 양 훈 목사
수요일 오후1:00~2:10	크로스웨이제3권(신약편) 이 조 웅 목사	수요일 오후1:00~2:10	크로스웨이제1권 조 동 원 목사
수요일 오후2:20~3:30	계단별양육훈련 윤삼중 강도사	수요일 오후2:20~3:30	인물별성경연구 김 회 수 목사
목요일 오전10:00~11:10	느헤미야 장 경 철 목사	목요일 오전10:00~11:10	사도행전 홍 창 민 목사
목요일 오전11:20~12:30	디모데전·후서 이 중 대 목사	목요일 오전11:20~12:30	열왕기상 김 찬 곤 목사
목요일 오후7:00~8:10	베드로전·후서 김 수 상 목사	목요일 오후8:20~9:30	로마서 김 용 기 목사
금요일 오전6:00~7:00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제1권 신 성 종 목사		

충헌경로대학

2학기 학생모집, 9월 16일 개강

충헌경로대학(학감 김경철 장로)는 9월 16일 2학기 개강을 앞두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

원로목사·당회장 동정

김창인 원로목사

- 23일 권사회 수련회 개최예배 설교
- 24일 이리시 연합집회 설교

당회장 신성종 목사

- 24일 권사회 수련회 설교
- 24일 이슬비전도학교 개강예배 설교
- 27일 순복음신학원 제8회 하계 급식 수련회 강의(오산리 기도원)
- 27일 이슬비전도학교 수료예배 설교

새가족위원회 단기수련회

새가족위원회(위원장 강은원 장로)에서는 93년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새가족위원회 수련회를 갖기로 했다. 시간은 8월22, 29일 주일 오후 12시 20분~2시 20분까지이며 강사는 새가족위원회 지도 김용기 목사이다.

고등부서 3개월간 청소년지도자 훈련과정

고등부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청소년지도자 훈련과정을 개설한다. 1단계 청소년교육과 이해, 2단계 청소년선양의 기초와 문화연구, 3단계 청소년 신앙교육의 실제로 나누어 훈련하는 본 과정에 고등부 교사는 필수적으로 참여하며 대년도 고등부 교사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과 청소년 사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문의: 주일은 고등부 교사실(교관229), 평일은 장봉생 목사(2교구, 교관302), 평일저녁은 569-4246)

다. 충헌경로대학은 60세 이상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인다. 매주 목요일마다 2교사의 강의 및 특별시간이 있고 후에는 각 특별부서별로 특별활동하는 시간을 갖는다.

60세 이상으로 타교인이나 불신자도 입학할 수 있다.

이슬비 전도훈련 실시

24일(화)~27일(금)

오전 5:00~7:00, 오후6:00~9:50

권찰 이상 직분자 필히 참석해야

이슬비 전도훈련이 8월 24일(화)부터 27일(금)까지 전교회적으로 실시된다. 오는 10월 17일 예수사랑큰잔치를 준비하며 전교인 전도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이기에 권찰 이상 직분자는 물론 청년, 대학생, 교회 학교교사, 찬양대원등 모든 교인이 한마음이 되어 참석해야한다.

훈련은 기간 중 매일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한후 각 일과를 보고 다지

며 6시부터 9시50분까지 이어서 하게 된다.

교회에서는 출퇴근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침 및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 이슬비전도훈련은 전도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전도대상자에게 쉽게 접근하여 전도할 수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전도할 수있게 하는 훈련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밀알 사랑의 캠프

제 13회 중증 장애인을 위한 밀알 사랑의 캠프가 지난 8월 16~19일 충헌기도원에서 모였다. 전국에서 모인 중증 장애인 350여명과 보호자 350여명 등이 모여 3박 4일간 모인 캠프에서 장애인들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뜻깊은 시간들을 보냈다. 새벽기도회, 낮 성경공부, 저녁 부흥회 및 특별시간, 밀알의 밤, 캠프파이어 등의 시간들을 통해서 각자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우

리는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축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병원에 입원한 우리 교인들을 심방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옆에 침대에 있는 분은 불교신자이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불교신자가 목사에게 병냇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종교인들의 복을 구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지 복을 받으려는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비결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불의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저들에게 진노가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2. 이방인들(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합니까

충헌강단



1.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임합니까

(1) 구약시대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진노가 두 가지의

경우에 임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즉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저들에게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바로 사사시대 같은 때입니다. 사사시대 당시 가나안 땅 주변에는 일곱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경배하지 아니하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겼을 때, 즉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저들에게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노를 내리셨는가 하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서부터 자유를 빼앗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통해서 전쟁을 맞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종적인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가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불의와 악을 행할 때 저들에게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형적인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가 잘못 되었을 때 진노가 내려왔고 또 한편으로는 형적인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심판을 하셨다 그말입니다.

(2) 신약시대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어떠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신약시대에도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모든 경건치 않음', 즉 다른 말로 하면 불경건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라고 했습니다. 불의에 대하여 라고 했는데 이 불의라는 것은 형적인 관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음행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첫째로 본문 18절에 '경건치 않음과'라고 했는데 이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었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불경건의 경우 네 가지를 본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로 이것이 불경건의 구체적인 경우입니다.

둘째로 '불의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본문 29,32절에 21가지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헐뜯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그 다음에 헐뜯지 못한 일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미행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유배한 자요, 배척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

불경건한 자들과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진노가 다릅니다. 성도들도 불의할 때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진노는 멸망이라고 하는 진노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때로는 징계를 주시기도 하시고, 사일이 땅하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지련을 주시지만 그것은 사랑의 매입니다. 어머니가 공부안하는 아이들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 종아리를 치는 것같이 때때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다면 불신자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십니까? 본문에 하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시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완악함으로 더러운 데에 내어 버려두셨나니" 또 28절에 "이들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나니" 또 29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세 번에 걸쳐서 내어 버려 두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치시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내어 버려 두는 것은 큰일 일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배를 맞습니까? 감사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로 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악을 범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는데 가만히 두십니까? 내어 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아니하고 사랑의 채찍을 치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내어 버려둔 증거입니다.

어떻게 내어 버려두었습니까? 24절에 '더러운 데에 내어 버려 두었다' 성적인 타락에 그대로 내어 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더럽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러운 일을 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6절에 "추치스러운 욕정에 그대로 내어 버려 두셨나니" 남녀간의 음행, 특별히 요즘 유행하고 있는 동성연애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수간, 동물과의 음행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까. 이렇게 추치스러운 욕정에 그대로 내어 버려 두셨으니 그랬습니다. 28절에 보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셨나니" 상실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절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살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 내가 죄를 행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3. 진노가 변하여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꾸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보따리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영광들, 그 영광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보따리 교회에 놓고 가세요. 그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가세요. 회개라는 것은 곧 우리의 짐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우리는 찾을 것을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그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 의를 구하려고 했는데 의라는 것은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을 현실적인 면에서 적용한다면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하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실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내기 주님을 찾고, 주님과 바른 생활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한번 해보라 그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변하여 선행한 축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행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 성 중

<목사·당회장>



물꼬를 터주라

그

지금 우리 나라는 돈과 정서와 영혼에 가뭄이 많이 들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기전에 독을 막아서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면 '장막'이 더 커지고, 터져 오히려 수해만 더 커진다. 따라서 정치도 살피고, 제도나 법의 축을 많이 만들면 안되고, 경제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주도형에서 벗어나 자유훈과 경쟁을 중심한 시장경제로 바뀌어야 한다. 정치나 경제의 원리란 것은 다 물이 흐르듯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혁이란 것도 힘으로 밀어붙이면 부작용만 커진다. 시골에 가보시. 어떤 장마에 많은 쓰레기들이 파내려가 개천에 깨끗해진 것을 보았다. 무엇이나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면 힘만 들고 부작용이 더 심할 뿐 생각대로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법사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도와주시옵고 물꼬를 터주는 지체로 이 가뭄을 극복하자.

글 / 신 성 중 목사



인도네시아 현지 선교훈련을 다녀와서(2)

모슬렘 속에서 십자가를 보는 찡한 감동

이 복 회

(집사, 선교훈련원 간사)

토요일엔 서만수 선교사님께서 57개 교회를 개척하신 중에 57번째 교회와 56번째 교회를 방문했는데 자카르타에서 한 시간 정도의 거리였다. 좁고 모든 시설이 전혀없는 그야말로 낙후한 모습 그대로 의자만 몇개 놓여진 예배당에 예수님의 작은 초상화와 보자기로 씌워 놓은 탁자 강대상, 그것이 전부인 그들의 예배당.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받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과분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감사지만 차라리 송구하고 죄스러움이 더했다. 아주 큰 축복속에 살면서도 축복인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네 대다수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감당키 어려운 묘한 갈등속에 사로잡혀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은 선교비를 투자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음을 뼈속깊이 느끼면서 또 새로 짓고 있는 교회를 방문했다. 정식으로 나라에 허락을 받을 수 없기에 가정집처럼 작고 협소하지만 벽엔 제법 십자가 문양을 새겨 넣기도 했다. 언제 어디서보아도 친근감있고 반가운 십자가. 그 십자가를 모슬렘이 판치고 사신우상이 범람한 인도네시아에서 보는 감회는 또 다른 감격이었다. 토요일 하룻동안 세계의 교회를 방문하면서 우리 선교연구원생들의 감회는 각각 다르겠지만 분명한 공통점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행하신 일들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이제 나누어주며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도 일꾼으로, 동역자로 서야함을 느꼈다.

다음날 주일아침 150년의 역사를 지녔다는 임마누엘 교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린다

고 하셨다. 한달 정도후면 새로 사신 교회로 입당하실텐데 그 나라 육군 참모총장이 살던 집이라고 하셨다. 지금 수리하고 교회로 만드는 작업이 계속 중이었다. 11시 15분부터 예배가 시작되었고 그전에는 화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예배 도중에 서 선교사님께서는 우리 총현선교연구원생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는 친절함을 보이셨다. 앞으로 해마다 연중행사로 연구원에서 오셔서 수고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셨다. 12시 30분에 예배를 마치고 JL, RADIO에 있는 교육관에 마련해준 숙소로 돌아와서 참으로 오랫동안 오후 시간을 쉴 수 있었다. 저녁 7시 30분 저녁찬양예배는 특별순서로 우리 모두가 찬양을 담당했고 은혜스러운 밤이었다.

월요일 아침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일찍 아침식사를 하고 '반동'이라는 화산이 폭발한다는 곳에 개척한 교회를 둘러보고 약간의 관광도 함께 가자고 하셨다. 두대의 봉고차에 나눠 타고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한시간쯤 갔을까?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앞가던 우리 일행의 봉고차가 갑자기 펑 돌더니 좌측 길모퉁이 논바닥으로 굴러서는 네바퀴가 떴을때 굴러가는 것이었다. 모두 죽었겠구나 하는 순간 가슴이 확 막혔다. 이 절박한 순간인데 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가? 우리 일행들이 모두 뛰어났지만 꼼짝할 수 없었다. 정신차리고 나가보니 얼굴이 터져서 멍든 사람 찢어져서 피가난 사람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없어서 우선은 안심했다. 크게 다쳐서 입원해야할 정도의 부상자도 없었다. 할렐루야! 서만수 선교사님께서도 그 차에 타셨는데 상처하나 입지 않으셨다. 사망

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셨다고 농담까지하셨다.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었다. 464장은 어젯밤 우리들이 특송으로 부른 찬송이었다. 30분 후 앰블런스가 도착했다. 우리들은 고속도로를 유턴해서 다시 자카르타 시내에 있는 기독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간병을 하기도했다. 김포공항에서 떠날 때 여행자보험에 들까 말까 망설이다가 여행자보험에 들었던 것도 여호와이레였구나 싶어 감사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X-Ray를 찍어본 결과 뼈하나 손상되지 않고 약간의 찰과상 정도여서 모두 병원에서 나왔다.

저녁엔 예정대로 서 선교사님 댁에서 양 한마리를 잡아서 특별히 양고기 파티로 우리들을 위로해 주셨고 현지인 신학생들이 찬양으로 우리들을 환영하면서 반겨주었다. 그 중에 한 여학생은 온 가족이 회교도여서 집에서 쫓겨나 선교사님 댁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웬지모를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복음을 위하여 단 한번의 필박도 받아 본 적이 없는 나는 뭔가? 주님! 받기만하고 베풀어 본 적이 없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인도네시아를 사랑할 수 없을 것같던 내 마음, 그들의 무지함을 경멸했던 나는 저

들에게 갚아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입니다. 나의 오만함을 용서해주세요. 회개와 결심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 댁을 떠나오면서 이십년이 넘게 사역해오신 선교사님 내외분의 눈물과 정성을 나로써는 헤아려 보는 것조차 민망하고 송구스럽게 느껴진다. 어떻게 그 많은 세월들을 모든 것 다 잊고 복음만을 위하여 오직 이 복음만을 위하여 사셨을까? 주의 종을 보시고 끔찍한 사고 속에서도 철저하게 지켜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일이면 축복받은 내 나라에 간다는 기쁨 또한 행복하지만 다 해 치울수 없는 커다란 숙제를 안고 가는 것처럼 무거웠다.

8월3일 화요일 새벽5시 예배를 마치고 우리들은 각자의 침을 챙겨들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대한항공 628기에 몸을 싣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할 것 뿐이었다. 김포공항에 도착하니 선교연구원생 한 분이 우리들을 마중나왔다. 콧 끝이 찡한 감사를 느끼면서 간단히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들은 선교지(인도네시아) 현지 훈련의 모든 일정에 막을 내렸다. 할렐루야

▼ 인도네시아 다니족의 남녀들



◆ 살며 생각하며 ◆

참 부자 참 자유



김 형 덕

(집사, 제21교구, 아멘찬양대)

시키는대로하고 때로는 돈돈돈하다 돌아버리기도 한다. 불과 삼, 사년 전까지만해도 나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하루도 쉬지않고 일을 했으나 내 생활은 돈에 얽매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삭막해져만 갔고...

그러던 어느날 - 하나님께 매를 맞고 난 후였지만 -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 수 없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렘 29:12-13)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만나 주시사 나에게 돈의 허상과 본질을 바로 보는 지혜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돈으로부터 참 자유케 하셨다.

그것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돈. 있어서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알고보니 별것이 아니었다. 돈으로 좋은 침대와 포근한 이부자리는 살 수 있지만 깊은 잠은 자지 못한다. 비싼 책은 얼마든지 사도 명석한 두뇌는, 지혜는 살 수 없다. 음식은 마음대로 살 수 있으나 입맛은 살 수 없고, 좋은 집은 살 수 있으나 건강까지 사지는 못하고 향락이나 쾌락은 살 수 있었지만 행복은 사지 못한다. 돈으로 종교는 구하고 인정은 받겠지만 돈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에 들어설 수는 없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던 돈이 이처럼 본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된 것이다. 개별화물을 하고 있는 나는 가끔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 '우리집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없는 것이 있다면 단 한가지 별 것 아닌 돈 뿐이다. 그러므로 한 가지만 내놓고 없는 것이 없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우리집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다' 그러면 아내와 아이들 -아직은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도 밝게 웃으며 내 말에 동조를 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었던 저를, 죄와 허물로 죽은 저를 그 크신 은혜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 30:8-9) 라는 잠언 기자의 고백이 한 평생 저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주께서는 저를 아시오며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로 참 부자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 자유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시다.

□ 환경오염에서 지키기 □

물 아껴 쓰기

지구상의 물 가운데 97%가 소금물이다. 3% 만이 담수인데, 그나마 대부분은 극지방의 빙하로 얼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물은 지구상의 물 가운데 1%도 못 된다.

- 양치질을 할 때는, 치솔을 적실 때만 잠깐 물을 틀고, 입안을 행굴 때까지는 물을 잠그라.
- 목욕을 하는 대신 5분 샤워를 하라
- 비누칠을 하는 동안 샤워를 잠그라
- 찬물로 손을 씻도록 하라
-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수도꼭지 밑에 설거지 통이나 물통을 두라
- 외출 할 때는 수도꼭지와 연결된 주 밸브를 잠그도록 하라
- 세차하고 싶을 때마다 하루만 연기하라 세차할 때 마다 호스를 사용하지 말고 물통에 받아서 사용하라
- 빗물받이 물통을 다시 쓰라
- 빨래는 세탁기 하나 분량이 될 때까지 모았다 세탁하라
- 잔디에 물 주기전에 일기예보를 점검하라

우리가 한 평생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 중의 하나가 돈(재물)이다. 세상에는 돈의 막강한 위력 앞에 무릎 꿇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있다. 그들은 대부분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돈이 끝면 끄는대로, 시키면

토막소식

◆ 영아부는 영아부 발전을 위하여 건의함을 예배설 입구에 걸어두고 누구든지 영아부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도록 했다.

◆ 유치부는 오늘 성경퀴즈대회를 연다. 그리고 9월 9일은 반별찬송가부르기대회를 할 예정이다. 14곡의 연습곡을 발표하여 온 반이 연습에 한창이다.

◆ 초등1부는 가을대심방을 앞두고 8월 29일 교사기도회로 모인다.

◆ 초등2부는 각 어린이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성경이야기대회를 오는 9월 12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 초등4부는 그동안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요한복음 전장 쓰기를 이달 말로 마감한다. 한편 학생 대상으로 마가복음 전장을 써서 이달 말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 초등5부는 다음 주일 연구수업을 실시한다. 사랑1반의 이성남선생님과 그 반.

◆ 초등6부는 금년들어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오고 있는 안드레전도운동을 3번째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충현기도원에서 기도회를 갖는다.

◆ 중등1부는 8월 대심방을 마감하면서 특히 장기결석자에게 이슬비전도편지 발송 및 전

화심방은 물론이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심방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 중등3부는 오늘 예배후 1993년 작은음악회를 중등3부 집회실에서 갖는다. 지휘에 이승순 집사, 반주에 홍정화 선생 인도로 준비된 음악회는 합창, 중창, 독창 및 바이올린, 피아노, 오보에, 첼로합주와 기타합주 등 다양하게 진행된다.

◆ 고등부는 현재 122개 고등학교에 충현들 로스를 조직하고 신앙훈련과 학원전도에 전력하고 있다. 서울과 근교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자로 모교의 복음화와 후배 신앙지도에 관심있는 사람은 학교모임(들로스) 스텝으로 지원하기를 바라고 있다. 지원자격은 구원의 확신과 복음전도에 헌신된 20~30세 남녀로서 본교회 등록된 세례교인이여야 한다.

◆ 대학부는 9월 12일 예수사랑 가을잔치를 갖기로 하고 준비에 한창이다. 동원 할 인원은 800명으로 현재 출석하고 있는 사람이 한 두명씩만 데려오면 된다.

◆ 에바다부 학생반은 오늘 3학기 학습평가의 시간을 갖고, 그림그리기대회를 갖는다.

◆ 에바다부 성인반의 박인기 선생이 국제농아인올림픽위원회의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다.

◆ 새가정부에서는 회원들 가정 상호간의 필요한 용품들을 서로 바꾸어 사용하는 일들을 한다. 특히 유아용품들을 서로 교환하여 사

용하려고 한다.

◆ 안수집사회는 8월 30일부터 9월1일까지 거제도 외포리에 있는 신명교회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강사는 윤용규 목사.

◆ 권사회는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갈릴리 홀에서 하기수련회를 갖는다. 강사는 김창인 원로목사와 당회장 신성중 목사, 이두란전도사 및 이진숙 사모이다.

◆ 경로대학은 93년도 제2학기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경로대학은 6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입학할 수 있다. 접수는 주일과 수요일에 하는데 경로대학사무실에서 한다.

◆ 감사위원회에서는 상반기 회계감사를 22일에서 29일까지 아직도 감사를 마치지 않은 부서를 위해 추가로 실시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23일(월)권사회 수련회 개회예배설교, 24일(화)이리시 연합집회 설교
· 신성중 목사님 : 24일(화) 권사회 수련회 설교, 이슬비 전도학교 개강예배 설교, 27일(금) 순복음신학원 제8회 하계금식수련회 강의(오산리 기도원), 이슬비 전도학교 수료예배 설교
2.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이 백성이 불의를 버리게 하소서.
3. 24일부터 시작되는 이슬비 전도훈련에 모두 참여하여 큰 은혜를 받게 하소서.
4. 권사회 수련회(23,24일)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5. 93 예수사랑 큰잔치를 앞에 놓고 태신자를 정하여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한·일 기독교청년 미래 지도자 대회를 마치고

참된 사랑으로 기도할 터

남 희 경
(동경5조)

저는 이번 대회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고 참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평소 일본땅에 대한 선교 비전이 남달리 간절하고 컸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이었는지 처음 몇일 동안은 영적으로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 무척 괴로웠습니다. 말씀도 너무 평이하고, 평소 들던 말씀뿐이라는 교만한 생각때문에 제 마음에 불평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노방전도를 나가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제가 속한 팀은 도요하시 호산나 교회의 C팀이었

공과책에는 예수님께 보내는 편지란이 있었는데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를 쓰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홈 스테이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참된 사랑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인은 3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수연 자매와 함께 부인이 한국인이라는 집에 가서 홈 스테이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무척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또 저녁식사 후에는 후지시로 교회에 다니는 이와사기 부부가 저희들을 찾아와 다음날(주일)에 할 찬양과 간증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저와 조수연 자매는 아침 9시에 주일학교에 가서 공과를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가 6명이었고, 3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3명이었습니다. 공과책에는 예수

님께 보내는 편지란이 있었는데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를 쓰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홈 스테이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참된 사랑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정말로 연약했습니다.

저는 이제 2박 3일간의 홈 스테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어린 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벌써 한국 땅에 발을 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뭘 일입니까? 공항을 나온지 채 5분도 안되어서 저는 세 개의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쳐도록 받는 나라구나! 이제 우리도 나눠주어야겠다. 이 좋은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는 무지에서 비롯

이 정 우
(대학부)

"오해는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과거와 결부된 좋지 않은 감정을 오해라고 규정지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만 적어도 이 대회를 준비하며 느꼈던 그런 감정들은 어느 정도 오류를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 그 역사를 초월하시는 주권자를 염두에 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용서받고 용서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미만....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되는 숫자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나만 교회에 다녀'
'학교에선 크리스찬이 나 혼자 뿐이야....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어'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숫자는 비록 적지만,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들을 보며, 내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 보며,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태신앙도 아니고, 어릴때 주님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우리처럼 교회, 신앙서적 등이 풍부하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이 절

개를 지켜 나가는 복음의 씨앗들.....

그들과 밤잠을 설치며 이야기를 나누며 느꼈던 것은, 그들은 일본인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일본땅에서 태어나 그리스도보다 일본을 먼저 알았지만, 그들은 우리땅을 침략하여 선조들을 짓밟았던 일본인이기 이전에 영적으로 폐역하고 타락한 일본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해는 무지에서 비롯되므로 서로를 조금씩이라도 알게되면 그 오해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주안에서 하나됨을 알게하여주시니, 이 대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노방전도는 그 이상으로 힘든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지 받기를 거부했으며, 약 두달 동안 기대를 갖고 준비했던 판토마임도 수 차례 공연을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 준 사람은 중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저는 무사히 캠프생활을 마치고 홈 스테이 할 곳인 후지시로 상서 교회에 갔습니다. 역사가 약 20년 정도 되는 교회인데 교

저는 무사히 캠프생활을 마치고 홈 스테이 할 곳인 후지시로 상서 교회에 갔습니다. 역사가 약 20년 정도 되는 교회인데 교